

■ 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 계획 확정

# ‘공영형 이사’ 형태 내년 1월 출범

(지역·사회 각계각층 대표)

지난 19년간 임시(관선)이사 체제로 파행운영돼 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내년 1월 정(正)이사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잠정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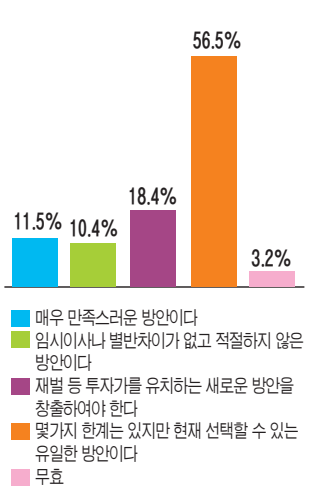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백수인 교수)는 23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한 교직원·학생 등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물러난 종전 이사진(박철웅 일가)은 철저히 배제한다는데 합의했다. <표>

이사회는 지역과 사회의 각계각층 대표인 ‘공영형’ 이사로 구성하며, 임원은 이사 11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의 11인의 이사 중 3인은 개방형 이사(사립학교법 제14조)로 하며, 광주시·전남도·광주시교육청·국내 우수기업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조선대 총장과 총동창회 추천 과견 2인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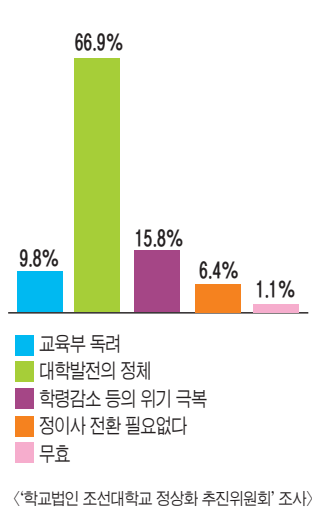
위원회가 앞서 법인직원·교수평의회·직원 노조·총학생회·총동창회·부속 학교 및 기관 등 3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자 1천228명)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6.9%가 ‘대학발전’을 위해 정이사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 학생·교수·동창회 등 3,500명 설문 박철웅 前 총장일가 철저히 배제 원칙 이달 중 교육부에 이행계획서 제출

■ 정이사체제 전환 방안을 공영이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생각은?



■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은 왜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6.4%, ‘교육부 독려’ 때문이라는 반응은 9.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3.2%는 또 정이사 체제 전환하는 데 있어 학내 구성원

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육부 의견은 18.4%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들은 특히 전 경영진

(박철웅 일가)를 정이사진에 일부라도 포함하는 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가 제시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7.6%가 ‘한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적극 투쟁하겠다’(11.6%)는 반응을 보였다.

정이사 체제 전환을 공영이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56.5%)는 생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재벌 등 투자가를 유치하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18.4%) ▲매우 만족스러운 방안(11.5%) ▲임시이사나 별반 차이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10.4%) 순이었다.

이사를 추천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학생·교수·직원·총동창회), 관련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가 44.1%로 가장 많았고 ‘대자협 중심’(38.3%)이 뒤를 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임시이사회를 뽑은 사람은 각각 9.5%와 4.6%에 불과했다.

한편 조선대 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용채 변호사)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 이달 중 교육부에 정이사 전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책 바꿔보세요” ‘새마을문고 광주지부’(회장 정준연)가 광주시 광산구 구민회관 앞 광장에 22~24일 개설·운영 중인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 이곳엔 2천여 권의 문학·아동·교양서적이 비치돼 있으며, 1인당 3권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문의 062-361-4680.

## 몽골 대졸여성 연수 왔다 성매매 광주 허브숍서...경찰, 성구매자 신원 조사

어학 공부 등을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출신 대졸여성 2명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 살던 E모(여·22)·B모(여·24)씨는 지난해 12월4일과 7월14일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 대학 졸업 후 E씨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충남 보령시 ‘김 공장’으로 향했고, B씨는 부산 D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일반 연수용(D4) 비자로 방문했다. 체류기간은 각각 1년과 6개월간이었다. 하지만 E씨는 김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한 뒤 불려 나왔고 B씨는 어학연수를 마친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두 사람은 지난 15일과 13일 광주 K 호텔 당 화대 11만원 중 6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이들이 지난 22일까지 관계를 맺은 남자는 30여 명. 윤락행위를 한 E씨 등은 일주일 내에 몽골로 강제출국된다. 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350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허브숍업주 김모(49)씨 등 2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성 구매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339) 김종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정호, 연수, 도래, 대림

KCC정호, 시스템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정호, 대림, 대림

실리콘·방수공·철축공·타이브

달 위해 이웃집 개 혼내주려다...

○-어린 딸이 이웃집 개 때문에 유치원 가기를 무서워하자 슬금에 남의 집 담을 넘어 아버지가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9)씨는 23일 새벽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강모(75)씨의 집을 지나던 중 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자 1.3m 높이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골목길에 있는 집 개가 인격척에 자주 짖어대는 바람에 딸이 “개가 무서워 유치원에 가지 싫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강씨 집 담을 넘어 말다툼을 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전에다 강씨에게 ‘개가 짖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며 수차례 요구했으나 말을 듣질 않아 슬을 마신 상태에서 화김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건축업자에 수천만원 받고 부당 대출

## 강진 수협 조합장·상무 구속

### 광주지검 장흥지청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3일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축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강진군 수협 조합장 배모(51)씨와 상무 박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차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업자 황모(36)씨를 특가법 위반(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박씨는 2005

년 6월과 10월 중순께 황씨로부터 부당 대출을 대가로 각각 2천만원을 받았으며, 차씨도 같은 명목으로 황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 등은 황씨의 담보 여력이 매우 낮아도 이를 무시하고 20여만 상당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 수협은 지난해 9월27일 수협 강진을 지점장이 부당대출 등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되는 등 최근 수 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파행을 빚어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초등생 유괴 대학생 등 중형 선고

### 광주지법, 징역 5~6년

동거 비용과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한 대학생 등에게 법원이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3일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강모(2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강씨의 동거녀 이모(24)씨와 사촌 이모(26·광주 J대 4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자식

의 안전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 및 일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불안감·불신 조장 등의 악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 700만원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동거녀 이씨 등과 함께 지난 7월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골목길에서 김모(8·초교 2)양을 유괴한 뒤 부모에게 7천만원을 요구했다가 3시간여 만에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와 울리지 않는 경량 디자인 기술로 모든 난청을 해결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입니다.  
상담전화 1588-8499 080-222-0100